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온 가족의 주님 [마가복음 10:13-16]

설교자: 리처드 무트(Richard Moot), 설교문 작성자: 웨스 브라덴호프(Wes Bradenhof)

13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은 종교개혁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95개 조항을 게시한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의 예배와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칙, 즉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첨가한 내용을 겹겹이 추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 중 일부를 잊어버리고 무시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목적으로 다시 돌려놓은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초의 개혁자셨습니다. 오늘 설교본문은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열악하고 비성경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태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16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어른들 뿐 아니라 연약의 자녀들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실 그분은 온 가족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재설정된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아이들의 모방.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만져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부모들은 그리스도가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랍비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할애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죄 된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죄 많은 태도는 죄 많은 행동을 불러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중 아주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 안에 믿는 자의 자녀들을 포함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내용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 전에 마가는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었고 너무나 죄 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어린 아이들을 몰아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분을 가장 가깝게 모시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인 면이 아닌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신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교회에 가는 것을 선택 사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영적인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읽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읽고 영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사주는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똑같이 죄 많고 사악합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함께 오늘 설교 본문은 이러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냅니다. 이 일 이후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에게 길을 터주어서 자신에

게 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른들이나 존경할 만하고 성숙한 군중을 위한 교사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사람들, 그들을 옹호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도움이 필요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살아 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15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를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같고, 구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길을 가로막는 대신, 당신도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그리고 우리 모두)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으로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미 그 왕국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재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함과 그 행함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무력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5절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가 나중 되고 나중이 먼저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높고 강력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린 아이들과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고, 그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처럼 이런 자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